

양화 표현 ‘다’의 의미 처리 연구¹⁾

이 성 범
(서강대학교)

Lee, Sungbom. 2007. A study of meaning processing of the quantificational expression 'ta'.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8: 61-78. This paper deals with how the semantic/pragmatic processing of the Korean quantificational expression 'ta' occurs. To this end, we first characterize 'ta' as an event quantifier as well as an entity quantifier. After examining a recent analysis of the quantifier by Choi (2005), we analyze 'ta' as an operator allowing Strawson-entailment as defined by von Stechow (1999, 2001). Being a Strawson-entailment operator, 'ta' requires a procedure of processing which is different from for an ordinary universal quantifier. This is captured by the parallel processing model of semantic/pragmatic information proposed by Lee (2004). In doing so, we focus on how an utterance with negative implicatures induced by the use of 'ta' is processed and on how the interaction takes place between the different modules of the model.

1. 들어가기

이 글은 한국어의 양화 표현 ‘다’의 의미 처리 과정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다’의 의미적 성격에 대해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는 같은 단순한 전칭양화사가 아니라 개체 양화와 사건 양화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복합적 양화 표현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제기된 최재희(2005)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가능세계에 대한 순서매김을 부여하는 스트로슨-함의적(Strawson-entailment) 연산자라는 관점에서 실제 ‘다’를 포함한 문장의 의미 처리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다’는 다른 양화

1) 이 연구는 2005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표현에 비해 독특한 화용적 추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런 화용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과정을 병렬적 의미 처리 모형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2. ‘다’의 의미

한국어의 ‘다’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는 이를 영어의 all 또는 every와 같은 전칭양화사로 취급하였다. 예를 들어 김영희(1983)는 ‘다’를 “전칭, 복수 집합을 나타내는 셈술말”로 분류하고 있고, 박영순(1994)이나 김광혜(1999), 김영근(2000)도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두’와 같은 범주의 수량사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최재희(2005)는 ‘다’를 개체 양화와 행위 양화의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칭양화사로 보고 있다. 반면에 이성범(2005)은 형식의 미론적 관점에서 ‘다’를 e 또는 <e, t> 유형에 속한 대상들을 변항으로 묶는 개체양화사와 t 유형에 속한 대상들을 변항으로 묶는 사건양화사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양화사로 규정하되 ‘모두’ 또는 ‘전부’와 같은 표준적 전칭양화사와는 달리 스트로슨 함의를 가능케 하는 양화사로 보고 있다.²⁾ 이때 사건양화사란 개념은 Davidson(1980)의 이론에서 제시되어 Partee(1990, 1991)가 발전시킨 것으로서 담화 상에 존재하는 개체를 묶는 양화사가 아니라 술어가 기술하는 사건을 묶는 양화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양화사는 자신이 묶을 대상이 복수의 개체로서 문장 중에 표시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개체양화사와 구별된다. 박철우(1990)는 한국어의 개체양화사로 ‘한, 두, 모든, 온, 전, 총..’ 등을 들고 있고, 사건양화사로는 ‘늘, 항상, 항시, 가끔..’ 등을 들고 있는데, ‘다’는 이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는 양화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음 예문을 보자.

- (1) 우리 반 학생들은 다 시험에 합격했다.
- (2) 압력 밥솥의 밥이 이제 다 되었다.

(1)에서 ‘다’는 담화에 제시된 개체들, 즉 ‘우리 반 학생들’을 모두

2) ‘개체양화사’는 Partee(1991)의 ‘D-양화사’에 해당하고, ‘사건양화사’는 ‘A-양화사’에 해당한다. 최재희(2005)의 ‘행위 양화’ 역시 A-양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묶는 개체양화사로서 ‘다’가 이처럼 개체양화사로 쓰일 때는 표준적인 전칭양화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1’)처럼 ‘모두’나 ‘전부’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반면에 (2)에서 ‘다’는 특징하게 표시된 담화 개체를 묶는 것이 아니라 ‘되다’라는 술어가 중심이 되어 기술하고 있는 사건을 변수로 묶는 사건양화사로 쓰인 것으로서 이럴 때는 (2’)에서 보듯 ‘모두’나 ‘전부’ 등의 전칭양화사로 바꿔 쓸 수 없다.

(1’)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시험에 합격했다.

(2’) ?압력 밥솥의 밥이 이제 모두 되었다.

또한 ‘다’를 포함한 어떤 문장은 개체양화와 사건양화의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중의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 (3)은 (3’) 또는 (3’’)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3) 선생님은 답안지를 다 채점하셨다.

(3’) 선생님은 갖고 계신 모든 답안지를 채점하셨다.

(3’’) 선생님은 답안지의 모든 답을 채점하셨다.

(3)에 대한 (3’)의 해석은 ‘다’가 <e, t> 유형에 속한 지시 대상인 ‘답안지’를 변항으로 묶는 개체양화사일 때 얻을 수 있는 해석인 반면, (3’’)의 해석은 (3)의 ‘다’가 ‘선생님이 답안지를 채점하시다’라는 명제적 사건에 대한 양화사인 경우 얻을 수 있는 해석이다. ‘다’가 개체양화사로 쓰일 때는 (4a)처럼 또 다른 개체양화 한정사 ‘전부’의 수식이 가능하지만, (4b)처럼 사건양화 부사 ‘완전히’의 수식은 불가능하다.

(4) a. 우리 반 학생들은 전부 다 시험에 합격했다.

b. ?우리 반 학생들은 완전히 다 시험에 합격했다.

반면에 사건양화사로 쓰인 ‘다’는 다음 (5a)처럼 개체양화 한정사 ‘전부’에 의해 수식되는 것이 어색하지만, (5b)처럼 사건양화 부사 ‘완전히’에 의해 수식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5) a. ?압력 밥솥의 밥이 전부 다 되었다.

b. 압력 밥솥의 밥이 완전히 다 되었다.

이상의 예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양화 표현 '다'가 개체양화와 사건 양화의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재희(2005)는 '다'는 '모두'나 '전체'와 달리 "[연속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닌 동사들의 '연속된 행위'를 '일회성 행위의 집합'으로 재구조화하여 인식하고, 화자의 인식 속에서 상정된 각 행위 단계의 전집합을 지시하는 전칭양화사"라고 주장한다. 최재희(2005: 91)의 예를 보면

- (6) 철수는 산을 다 올라갔다.
- (7) 영호는 저녁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산을 올라가다'라든지 '밥을 먹다'와 같은 술어는 시작점과 종결점이 명확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런 행위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술어 표현이다. 최재희(2005)는 이런 술어와 함께 사용된 '다'는 행위에 대한 전칭양화사로 취급한다. 그런데 이 분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다'는 그런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8) 뭐 이런 게 다 있어?
- (9) 원 세상에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여기서 '있다'라든지 '말(을) 하다'는 '산에 올라가다'나 '밥을 먹다'와 달리 시작점과 종결점이 확실하지 않으며 상당 시간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 연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즉 아래 예문에서처럼 연속된 행위의 동사만이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과 같이 쓸 수 있다.

- (10) 철수는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 (11) 영호는 저녁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 (12) ??뭐 이런 게 있는 중이야?
- (13) ??원 세상에 별 말씀을 하시는 중이군요.

따라서 최재희(2005)의 분석에서는 (8)이나 (9)에 나온 '다'는 개체양화나 행위 양화의 전칭양화사가 아니라 단순한 강조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조 표현들은 양화사와 우연히

형태만 같은 동음이의어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데 최재희(2005)는 이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우리는 (8)이나 (9)에 나온 ‘다’ 역시 (6)이나 (7)에서의 ‘다’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세계(possible world)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순서매김을 보여주는 연산자로서 통합된 설명이 가능하며, (8)과 (9)의 ‘다’가 갖고 있는 의외성이나 실망감 등은 이런 순서매김과 유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³⁾

뿐만 아니라 최재희(2005: 113)는 전칭양화사 ‘다’가 화자의 마음 속에 “상정된 행위 단계들의 전 집합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행위의 끝마침’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예문에서 ‘다’는 행위의 끝마침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14) 다 이긴 시합을 마지막에 역전 당했다.
 (15) [고속도로에서 ‘서울 10km’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이제 서울에 다 왔군.
 (16) [밥솥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밥 다 됐다.

예문 (14)-(16)에서 사건양화사로 사용된 ‘다’는 다음 예서 보듯 부정의 함축(negative implicature)을 유발할 수 있다.⁴⁾

- (14') 다 이긴 시합이었죠 +> 시합을 이기지 못했다.
 (15') 이제 서울에 다 왔군 +> 아직은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다.
 (16') 이렇게 김이 나는 걸 보니 밥이 다 되었군 +> 아직 밥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다.

반면에 ‘모두’와 같은 전칭양화사는 부정의 함축을 유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이 지적한 대로 ‘영미는 이구아나를 다 기르네’라든지 ‘오늘은 웬 일로 철수가 공부를 다 하네’와 같은 발화에서 ‘다’ 역시 의외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 발화의 맥락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다’는 아래 예문 (14)-(16)에 나온 ‘다’와 달리 ‘거의/거의 다’로 대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4) 이 글에서 ‘A +> B’라는 기호는 ‘A가 B를 함축한다’는 뜻이고, ‘A → B’는 ‘A가 B를 함의한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A ≢ B’는 ‘A가 B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A ↗ B’는 ‘A가 B를 함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14") 오늘 시합한 한국 선수들은 모두 이겼죠 ∇ 오늘 시합한 한국 선수 전부가 이기지 않았다.
- (15") 모든 학생들은 아침 일찍 서울에 왔다 ∇ 일부 학생들은 서울에 오지 않았다.
- (16") 모두 밥 대신 빵을 먹었다 ∇ 일부는 밥을 안 먹었다.

반대로 전칭양화사는 다음 (17)에서와 같은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건양화사로서 ‘다’는 (18)에서 보듯 함의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 (17) 모든 여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다 → 여당 국회의원 홍길동은 찬성했다.
- (18) 이제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nrightarrow 이제 다 왔다.

이상에서 ‘다’는 전칭양화사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보았는데 특히 ‘다’가 지닌 부정적 추론은 다음 문장이 의미적으로 이상한 것을 설명해 준다.⁵⁾

- (19) ?다 이긴 시합을 계속 잘 지켜 크게 이기고 말았다.
- (20) ?서울에 다 왔는데 결국 서울에 도착했다.
- (21) ?하늘이 이렇게 맑으니 내일 야유회는 다 갔다.

‘다’를 단순히 전칭양화사로 본다면 위 예문에서 본 부정의 함축과 함의 등의 추론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⁶⁾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다’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성범(2005)은 Strawson 함의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알아보자.

5) 사건양화사로서 ‘다’가 부정의 함축을 유발하는 것은 Jackson(1995)이 말하는 부정을 목격할 조건(negative witnessing condition)이 매우 높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다’를 총칭양화사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성범(2005)은 ‘다’를 총칭양화사(generic quantifier)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논의는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3. Strawson 함의적 연산자로서의 ‘다’

Strawson 함의는 고전적 논리학에서의 함의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개념이다. 먼저 보다 잘 알려진 함의란 일반적으로 어떤 문장 A가 참일 경우 다른 문장 B도 반드시 참이면 A가 B를 함의한다고 정의되는 논리적 포함 관계이다. 예를 들어 다음 (22)가 참이면 (23)은 반드시 참이므로 (22)는 (23)을 함의한다.

(22) Chris is an actress.

(23) Chris is a woman.

그런데 von Fintel(1999)이 제안한 Strawson 함의란 표준적인 개념의 함의와는 달리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전제로 하는 것이 분명히 정의될 경우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전제는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맥락에 의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결론 유도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이 개념은 원래 부정극어는 하향함의적 연산자의 영역에서만 출현이 가능하다는 부정극어에 대한 고전적인 Fauconnier-Ladusaw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 (24a)가 참이라고 해서 (24b)도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표준적인 함의에 의하면 (24a)는 (24b)를 함의한다고 볼 수 없다.

(24) a. Only John ate vegetables for breakfast.

b. Only John ate kale for breakfast.

즉 (24a)로부터 (24b)를 직접 추론해 내는 것은 엄격한 고전적 논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24a)를 발화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John ate kale for breakfast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24a)로부터 (24b)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타당해진다. 즉 비록 문장에 직접 표현되거나 발화된 적은 없어도 John ate kale for breakfast라는 것이 암시적 가정(implicit premise)으로 인정된다면 (24a)에서 (24b)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맥락의 일부로서 또는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된 가정으로서 전제된 명제나 고정된 함축이 있을 경우 이 숨은 의미가 추론에 추가적 가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가정에 의해 함의가

성립할 경우 이를 Strawson 함의라고 부른다.⁷⁾ 이는 엄밀히 말해 새로운 종류의 문장 관계가 아니라 맥락에서 전제되거나 인식되는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언어적 추론에서 Strawson 함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Strawson 함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24)의 예문과 같은 only를 포함한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선결 과제로 일단 (24)와 같은 문장에서 only의 의미 기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von Fintel(1996: 104)은 다음과 같이 only를 정의하고 있다.⁸⁾

(25) [only] (x) (P) is defined only if $P(x) = \text{True}$.

If defined, [only] (x) (P) = True iff $\neg \exists y \neq x: P(y) = \text{True}$.

이성범(2005)은 Strawson 함의적 추론을 한국어의 ‘다’에 적용하고 있다. 즉 사건양화사 ‘다’의 경우 이를 포함한 문장은 그 문장을 발화한 화자의 믿음의 세계에서 그 문장이 실현될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즉 ‘다’는 그것이 결합한 명제 내용 p에 대해 p가 현재의 세계에서 비추어볼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아서 그 반대가 성립할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양화사 ‘다’가 p라는 명제에 적용된 결과를 [다] (p)라고 표시하기로 하고 이를 어떤 화자 S가 w라는 세계에서 발화한 것을 [다] (p)(S)(w)라고 표시하기로 하자. 이때 [다] (p)(S)(w)는 Kratzer(1981)가 제안한 양상 기반 함수 f와 순서잡기 원천 함수 g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⁹⁾

(26) [다] ^{f,g}(p)(S)(w)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정의된다

7) von Fintel(1999)은 Strawson 함의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Ladusaw(1980)의 하향함의적 연산자가 아닌 only의 의미영역 안에 부정극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8) only에 대한 정의와 진리 조건을 이용한 (24a)로부터 (24b)로의 Strawson 함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성범(2005)를 참조할 것.

9) Kratzer(1981)의 정의에서 ‘양상 기반 함수(modal base function)’ f는 개체와 세계의 쌍으로부터 세계의 집합으로의 함수이며, ‘순서잡기 원천 함수(ordering source function)’ g는 개체와 세계의 쌍으로부터 명제의 집합으로의 함수이다. 이 함수는 화자의 기대치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가능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자세한 것은 Kratzer(1981)를 참조할 것.

- a. $DOX(S, w) \subseteq f(S, w)$
- b. $f(S, w) = \cap p \neq \emptyset$
- c. $f(S, w) - p \neq \emptyset$

우선 (26a)에서 $DOX(S, w)$ 란 집합은 w 라는 세계에서 S 의 믿음과 양립 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자 S 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서울 10km’라는 표지판을 바라보는 현재의 세계 w 에서 ‘서울에 다 왔다’라는 말을 할 때 ‘10분 후에는 나는 서울에 있다’라든지 ‘별일 없으면 서울에 곧 도착한다’라는 것과 양립하는 가능 세계들은 모두 $DOX(S, w)$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집합은 화자가 믿음의 세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들의 집합의 일부를 구성한다.¹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25)에서 only를 포함한 문장에 대해 정의한 것처럼, [다]^{fg}(p)(S)(w)가 정의될 수 있다.¹¹⁾

이상에서 본 ‘다’의 정의 조건과 ‘다’를 포함한 문장의 진리 조건이 실제 ‘다’의 해석에 작용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7)에서 a와 b 사이에는 표준적인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7) a. 이제 서울에 다 왔다.
- b. 이제 서울에 왔다.

그러나 별도의 반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가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 (27a)를 발화한 화자는 ‘다’를 통해 현재 가장 실현가능한 세계는 서울에 도착하는 세계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다’를 포함한 문장 (27a)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다 왔다’는 것은 위에 제시된 방식으로 정확히 정의될 경우 ‘서울에 도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숨은 가정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27b)를 Strawson 함의하게 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타당한 추론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27a)를 발화하는 사람이 고속도로 상에서 서울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27b)로의 Strawson 함의가 일

10) 단 집합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세계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공집합이어서는 안 되며, ‘다’의 피연산자인 p 의 세계를 최소한의 원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11) 엄밀히 말하면 ‘다’의 경우 (26)의 조건 외에도 순서 선택함수 \max 가 있어서 [다]^{fg}(p)(S)(w)는 $\forall w' \in \max_{g(S,w)}(f(S, w)): w' \in p$ 이고 그럴 때에만 참이 되지만 이는 이 논문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한다.

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서울을 막 떠나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했다든지 하면 (27a)에서 (27b)로의 추론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양화사로서 ‘다’의 추론 과정은 구체적 맥락에서 화자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요한다는 점에서 순전히 의미론적 추론이 아니라 화용론적 추론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체양화사로서 ‘다’의 의미해석 과정과 사건양화사로서 ‘다’의 의미해석 과정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이를 각기 처리하는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성범(2004)에서 제시한 병렬적 의미 처리 모델을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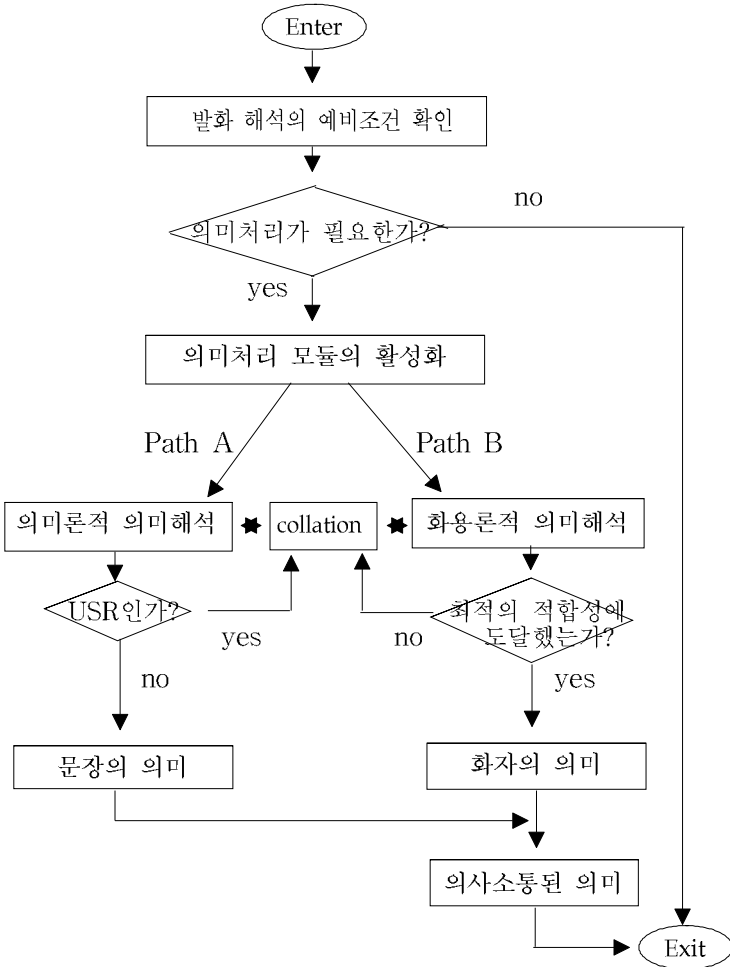
4. ‘다’의 해석

이상에서 본 것처럼 사건양화사로 쓰이는 ‘다’는 개체양화사와는 달리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 의미 처리 과정도 다르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던 예를 다시 들어보면

- (28) 우리 반 학생들은 다 시험에 합격했다.
 (29) 압력 밥솥의 밥이 이제 다 되었다.

(29)에서의 ‘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에서의 ‘다’와 달리 양화사를 제외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근거한 비표준적 추론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은 화자의 태도라는 맥락적 요인에 대한 추론이기 때문에 의미론적 추론 과정이 아니라 화용론적 추론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용론적 추론 과정은 의미론적 추론 과정을 선결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와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하나의 발화는 의미론적 해석과 화용론적 해석의 두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미 처리가 일어나지만, 이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선행하여 일어나는 직렬적 처리가 아니라 두 과정이 상호 독립적으로 일어나되 필요한 경우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 병렬적 처리로 본다. 다만 모든 발화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유형과 맥락에 따라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다. (28)과 (29)는 다음 (30)에 제시된 두 가지 의미 처리 경로에서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는 발화로 생각된다.¹²⁾

(30)



화자가 발화를 하는 태도와 전달 방식에 대한 평가, 발화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발화해석의 예비조건은 청자로 하여금 발화 환경을 인지하게 하여 그 발화에 대해 의미론적 처리로 이어지는 경로 Path A (이하 ‘경로 A’라고 부름)와 화용론적 처리로 이어지는 경로 Path B (이하 ‘경로 B’라고 부름) 중에 어느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준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문 (3)처럼 의미론적 처리와 화용론적 처리가 중의적일 경우도 있다. 경로 A와 경로 B는 발화가 청자에 의해 수신되는 순간 제 각기 의미 처

12) 이 의미 처리 모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성범(2004)을 참조할 것.

리를 위해 활성화되는데, 이때 발화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다음 (31)에 제시된 것처럼 활성화 정도에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31) 각 경로 활성화의 4가지 가능성

	경로 A	경로 B
가능성 1:	약하게 활성화됨	약하게 활성화됨
가능성 2:	약하게 활성화됨	강하게 활성화됨
가능성 3:	강하게 활성화됨	약하게 활성화됨
가능성 4:	강하게 활성화됨	강하게 활성화됨

가능성 1에 속하는 발화는 별다른 의미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발화로서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례적, 친교적 목적의 발화이다. 이에 비해 가능성 4는 하나의 발화 안에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풍부한 의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의미 처리 기제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 4에 속한 발화는 청자가 발화의 의미론적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하는 발화를 말한다. 반면 가능성 2에 속하는 발화는 발화의 표면적 의미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화용적 숨은 뜻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발화로서 그 발화의 의미 처리는 대부분 경로 B를 지나 화용론적 의미 해석 모듈에서 일어난다. 반대로 가능성 3에 속하는 발화는 별다른 함축적, 암시적 의미가 없고 단어 자체의 비맥락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는 것으로서 Grice(1989)나 Sperber & Wilson(1995) 식의 화용적 원리가 작동될 필요가 전혀 또는 거의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과학적 담화에서 사용되는 발화나 문장은 이런 의미 처리가 주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이웃집 아이를 마구 때린 것을 아버지가 꾸짖는 동일한 상황에서 (32)의 발화와 (33)의 발화는 그 종합적인 의미 해석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 (32) 너 정말 잘 했다, 잘 했어.
 (33) 너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즉 반어적인 발화인 (32)는 단순히 문장에 동원된 단어들의 의미만을 처리해서는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므로 (33)과는 달리 맥락에서 제공하는 언어외적 요소들을 참고해야 한다. 즉 (32)의 발화는 (33)의 발화에 비해 화용론적 의미 해석 모듈을 작동시키는 경로 B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어적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에 비해 경로 B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위와 비슷한 경우로서 다음 예문 (34)가 참이면 보통의 경우 (35)도 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함의 관계는 von Fintel(1999, 2001)의 분석을 따르면 Strawson 함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 (34) 주전 선수 셋이 갑자기 부상을 당했으니 이 시합은 다 이겼군.
 (35) 이 시합은 이길 수 없다.

(34)를 발화한 화자는 ‘이 시합은 이길 수 없다’라는 명제를 포함한 세계가 그의 믿음의 세계에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세계로 존재한다. 그 발화의 맥락에서 화자나 청자 양쪽은 이런 세계를 선택하게 해 주는 max 함수를 공유하므로 (34)에서 (35)에로의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36)에서의 ‘다’는 (34)와는 달리 (35)로의 추론을 유발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다’는 경로 A를 활성화시키는 표준적인 전칭양화사로서 처리된다.

- (36) 주전 선수 셋이 갑자기 부상을 당했으니 후보 선수 셋이
 다 나와야겠군.

결론적으로 같은 형태의 양화 표현 ‘다’가 사용된 문장이라도 그 ‘다’가 Strawson 함의적 연산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는 의미론적 의미처리 모듈로 연결되는 경로 A보다 화용론적 의미처리 모듈로 연결되는 경로 B가 강하게 활성화되는 반면, ‘다’가 Strawson 함의적 연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미론적 의미처리 모듈로 연결되는 경로 A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활성화되는 의미처리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5. 의미 처리의 상호 작용

위에서 우리는 ‘다’의 연산자적 특성에 따라 의미 처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다’를 포함한 발화는 때에 따라 경로 A와 연결되는 의미론적 의미 처리 모듈과 경로 B와 연결되는 화용론적 의미 처리 모듈이 상호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37)과 (38)을 비교해 보자.

(37) 다 왔다.

이 발화에서의 ‘다’는 Strawson 함의적 연산자로서 사건양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발화를 듣는 순간 청자는 경로 B가 강하게 활성화되어 화용론적 의미처리 모듈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발화 자체는 아직 미명시적인 발하이므로 의미처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보충이 필요하다. 즉 (37)은 아직 미명시적 의미 표상(Underspecified Semantic Representation, 줄여서 USR)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진리조건을 결정할 문장의 명제적 의미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37)의 발화는 비록 위의 (31) 표에서 본 발화 유형 중 가능성 2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로 A는 완전히 무시되지 않으며 일단 USR을 명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지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미 보충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 보충은 의미론적 의미처리 모듈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모듈에서의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 일단 대조 모듈(collation module)에 들어가 그 모듈에 제공되는 화용론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의미론적 의미처리 모듈과 화용론적 의미처리 모듈은 내부적으로는 각기 나름대로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지만, 필요할 경우 두 모듈은 대조 모듈을 통해 상호 작용할 수 있다.¹³⁾ (37)의 경우 화용론적 의미처리 과정을 거쳐 최적의 적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명시적 의미 표상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단 생략된 형태의 복원이 필요하다. 청자는 아마도 화자가 말한 ‘왔다’의 주체는 별도의 유표적인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담화 현장에

13) 의미론적 의미처리 모듈과 화용론적 의미처리 모듈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는 (37)의 예에서처럼 1)명시적인 의미 표상의 구축을 위해 맥락적 자원의 접화가 필요한 경우와 2)최적의 적합성에 도달하기 위해 명시적 의미 표상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성범(2004)를 참고할 것.

존재하는 화자 또는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오다’라는 동사의 속성상 필요한 도착지는 그들이 알고 있는 여행의 목적지인 ‘서울’로 생각할 것이다. 이는 Levinson(2000)이 말하는 R-원리에 의해 함축된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청자는 (37)로부터 (38)과 같은 보다 명시적인 의미 표상을 얻을 수 있다.

(38) 우리는 서울에 다 왔다.

일단 생략된 요소의 복원에 의해 (38)처럼 명시적인 의미 표상이 얻어지면 (26)에서 본 ‘다’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점검된다. 이를 위해서 청자는 그 발화가 이루어진 세계 w 에서 과연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 w' 로의 실현가능성이 과연 높은지를 확인하고 이 두 세계가 화자의 믿음의 세계인 $DOX(S, w)$ 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결과 청자가 그에 대한 확신이 서면 청자는 (37)의 발화를 Strawson 함의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서울에 왔고 이런 상황이 별다른 일 없이 진행되면 곧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해석하게 된다. 이때 w 와 w' 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 세계에서 순서 매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만일 화자가 (37)을 부산에서 출발한지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말했다면 청자는 그 말에서 Strawson 함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참 지난 후 서울이 불과 2, 3분 정도 남지 않은 거리에서 발화했다면 청자는 그 함의의 실현가능성을 의심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다’를 포함한 발화의 해석을 둘러싸고 모듈간 상호 작용하는 것은 Fass(1986)가 말하는 ‘지식의 공조작용(synergism of knowledge)’의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의 공조작용’이란 두 개의 독립적인 단위나 조직이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다’를 포함한 발화는 전적으로 어떤 하나의 의미처리 모듈로만 의미 처리가 불가능하고 두 모듈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공조작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6. 매듭짓기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양화 표현 ‘다’의 두 가지 특성을 밝히고 이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양화사로서의 ‘다’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표준적인 함의 개념으로써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다’의 추론 과정을 von Fintel(1999, 2001)이 제안한 Strawson 함의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즉 ‘다’를 포함한 문장이 정의될 수 있는 조건과 ‘다’를 포함한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실현가능성(likelihood)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명시함으로써 ‘다’가 보여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포함한 비표준적 추론 과정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표준적 추론 과정이 의미론적 의미처리와 화용론적 의미처리가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이성범(2004)의 의미 처리 모형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참고 문헌

- 김광해(1999). 국어지식탐구. 서울: 박이정.
- 김영근(2000). 국어 수량사 연구. 대구: 문창사.
- 김영희(1983).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서울: 탑출판사.
-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철우(1990). 한국어 수량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성범(2004). 의사소통에서 미결정적 정보내용의 명시화 과정 연구. 언어. 29권 3호. 377-417.
- 이성범(2005). Strawson-함의적 연산자로서 ‘다’의 의미. 이정민 편.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517-532.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현(1984). 양화사의 의미표지와 해석. 서울: 한신문화사.
- 최재희(2005). 한국어 전칭양화사 구문의 구조와 의미 해석, 한글 267호, 89-118.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Fass, D. (1986), Collative semantics. COLING: 341-343. Reprinted in S. Small, G. W. Cottrell and M. Tanenhaus, (eds.), 1988. *Lexical Ambiguity Resolution: Perspectives from Psycholinguistics, Neuropsych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an Mateo, CA: Morgan Kaufmann Publishers.
- von Fintel, K. (1999), NPI-licensing, Strawson entailment, and context dependency. *Journal of Semantics* 16: 97-148.
- von Fintel, K. (2001), Counterfactuals in a dynamic context.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IT Press.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son, E. (1995), Weak and strong negative polarity items: licensing and intervention. *Linguistic Analysis* 25: 181-208.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H. J. Eikmeyer and H. Rieser,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Berlin: de Gruyter, 38-74.
- Ladusaw, W. (1980), On the notion of 'affective' in the analysis of negative polarity items.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1: 1-23.
- Levinson, S.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Partee, B. (1990), Domains of quantification and semantic typology. In F. Ingemann, ed., *Proceedings of the 1990 mid-America Linguistics Conference*, University of Kansas.
- Partee, B. (1991), Adverbial quantification and event structures. *Berkeley Linguistic Society* 17: 439-456.
- Recanati, F. (2002), Does linguistic communication rest on inference? *Mind & Language* 17: 105-126.
- Sperber, D., and D. Wilson.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2nd. ed.. Oxford: Blackwell.
-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London: Methuen.

이성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121-742

전화번호: 02-705-8294

e-mail: sblee@sogang.ac.kr